

### 항공산업발전 소위원회 개최 항공산업필요성의 공감대 형성

새정치국민회의는 지난 5월 7일, 항공산업발전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정책수립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국민회의 중앙당사에서 열린 이번 소위원회는 국회 정책위 제2정책조정위원회에서 주관하였으며 각계 주요인사 12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토의결과 정부의 정책대안 개발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키 위해 교육/항공산업/항공운송분야 등 3개 분야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회의 명칭을 “항공산업 발전과 인력개발을 위한 정책 기획단”으로 하였다.

이번 기획단 활동을 통해 정부여당 및 정부의 강력한 항공우주 산업육성정책이 마련될 기틀을 구축할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동위원회의 활동이 기대된다.

### 항공우주협회, 공기반사업 체결 쌍발 경헬기 유압시스템 개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지난 4월 30일 산업자원부로부터 “쌍발 경헬기 유압시스템 개발 연구기획”의 공급기반기술개발사업을 계약 체결했다.

사업기간은 '98년 4월 1일부터 7월 31까지 4개월 간이며 협회는 현재 항공대 및 한화기계와 함께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기획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을 경우 산자부로부터 정식 공기반 사업으로 채택된다.

한편, 협회는 지난해에도 항공기용 소형제트엔진 저압터빈 개발, 여객기 주착륙장치 개발 등의 연구기획과제를 수행 모두 타당성을 인정받기도 하였다.

### 항공우주협회, 수입심의회 개최 Bell 427등 5건 수입승인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지난 5월 13일 항공기 수입심의회를 개최, 삼성항공의 Bell 427 8인승 헬기 등 총 5건의 항공기 수입을 승인했다.

협회 광병구 상근부회장을 비롯하여 심의회위원 6명이 참석한 동심의회에서는 이밖에도 아세아지리 정보가 요청한 세스나 TU206/207경비행기를 비롯, 현대우주항공 BK-117, 해양경찰청 KA-32C 헬기 등의 수입을 승인하였다.

### 한국중형기조합 실무위 개최

한국중형항공기사업조합 실무위원회가 지난 5월 9일 조합사무

국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 4차년도 사업 보완연장기간 세부실행계획(안) 등을 토의하였으며, 중형항공기사업조합은 이스라엘 IAI사의 에어트럭(Airtruck) 수요전망을 검증하기 위한 시장검토를 추진키로 했다.

### 항공우주학회, 춘계학술발표회 개최

한국 항공우주학회가 지난 4월 17일부터 양일간 영남대학교 및 공군 81항공정비장에서 98년도 춘계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항공우주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18일 일본 동경대학교의 교헤이 콘도 교수가 “일본에서의 항공우주 구조관련 연구현황”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한국화이바의 조용준 회장이 특별 강연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발표회 하루전인 4월 17일에는 공군 81항공정비창 및 공군 항공기술연구소가 학회 회원을 비롯한 일반에 개방, 견학의 기회가 제공되기도 했다.

### 항우연, 중형 과학로켓 오는 6월 발사

지난해 10월 기상불안으로 발사가 연기된 2단형 중형과학로켓

(KSR-II)이 오는 6월 초·중순  
 게 발사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소는 2단형  
 중형과학 로켓을 기후와 날씨 등  
 발사조건을 면밀히 검토. 다음달  
 초·중순께 충남 서해안 국방부  
 모시험장에서 발사한다고 밝혔다.

항우연은 지난해 7월 발사된 같  
 은 모델의 중형과학로켓이 관성항  
 법장치(DMARS)고장을 일으켜  
 각종 관측실험을 하지 못한 것을  
 고려. 이번에는 충격흡수장치를  
 보강해 충격에 의한 기기고장을  
 예방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로켓은 국내 기술로는 처음  
 개발된 2단형 중형과학로켓으로  
 연료장치가 2차례에 걸쳐 점화.  
 분리되고 예상 비행시간은 6분  
 10여초, 최고 고도는 1백40여km,  
 수평비행거리는 1백27km이다.

이 로켓은 총길이 11.1m, 중량  
 2T에 직경 42cm이며 발사된 후  
 바다에 떨어질때까지 한반도 상공  
 의 오존량 측정, 이온층 전자밀도  
 측정, 천체 X선 관측실험 등 각  
 종 관측 및 과학실험을 수행. 지  
 상으로 자료를 전송하게 된다.

**前공참총장 옥만호씨  
 항공우주전시관 개관**

새싹들에게 우주로 향한 꿈을  
 심어주려는 노(老)보라매의 소망  
 이 이뤄졌다.

74년 전역한 옥만호 전 공군참  
 모총장은 22일 오전 자신의 고향  
 인 전남 무안군·몽탄면에서 자신  
 의 호를 딴 호담(吳潭)항공우주전  
 시관 개관식을 가졌다.

옥 전총장은 군을 떠난 뒤 26  
 년간의 '빨간마후라 인생'을 회  
 고하는 비행기박물관 개관을 꿈  
 꾀다. 80년대말부터 준비를 시  
 작. 서울과 무안을 60~70회나  
 오가는 노력끝에 96년 9월 4천여  
 평 규모의 항공전시장을 마련했  
 다. 전시된 10대의 항공기 가운  
 데는 52년 평양공습때 탔던 무스  
 당(F51)을 비롯, 자신과 생사고  
 락(生死苦樂)을 함께 했던 애기  
 (愛機) 6대와 적기인 미그15,  
 AN2 등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현재의 어린이들이 나라  
 의 주역이 될 썬에는 우주공간이  
 현실 공간이 될 것으로 판단한 그  
 는 비행기전시장에 뒤이어 항공우  
 주분야의 발달과정을 한눈에 둘러  
 볼 수 있는 전시관 작업도 추진했  
 다. 결국 착공 2년여만인 지난 4  
 월 22일, 연면적 8백40㎡ 규모의  
 항공우주전시관이 개관된 것.

전시관 내부에는 옥 전총장이  
 사비로 미국 항공우주박물관과  
 미 항공우주국 NASA로부터 사  
 온 필름 1천여점이 21개 전시실  
 로 나뉘어져 체계적으로 전시돼  
 있다.

옥 전총장은 "우리의 항공 우주

과학 분야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한 파일럿의 인생이 담긴 이곳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항공  
 우주개발에 대한 원대한 꿈을 가  
 슴에 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형항공기 대회시  
 서울에어쇼' 98 홍보활동**

모형항공기 본선대회가 지난  
 18일(일) 공군사관학교에서 "더  
 넓은 세계로, 더 넓은 미래로, 더  
 높은 하늘로"라는 주제로 본선 참  
 가자와 일반 관람인 등 약  
 14,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되었다. 본선대회 7개부문 23개  
 종목에서 기량을 펼쳤던 이번 행  
 시는 불거리행사로 패러글라이더  
 비행과 항공장비 전시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한편 서울에어쇼 공동운영본부  
 는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서울에어  
 쇼를 홍보함으로써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입상자들에게  
 는 부상으로 서울에어쇼 스크린  
 세이버와 참가자들에게는 마우스  
 패드를 제공하였다. 또한 일반 관  
 람인들을 대상으로 홍보 VTR상  
 영, 스티커 배포를 함으로써 많은  
 호응을 받았다.

서울에어쇼 스크린 세이버는 천  
 리안의 go screensaver에서 받을  
 수 있다.